

칼빈과 웨슬리 신학의 주요 사상 비교

한 영 태

(서울신학대학교, 조직신학)

한글초록

한국 기독교의 신학은 크게 칼빈신학과 웨슬리신학의 양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개신교회의 신학을 말할 때 루터의 신학이 근본 원칙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 두 신학도 루터의 신학 원칙 위에 서있다. 루터는 천주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저항하면서 성서적인 ‘구원의 방법’을 정립하였고, 칼빈은 루터의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서 ‘누가 구원하는가?’라는 물음에서 ‘절대자 하나님’ 개념을 확립하였고, 웨슬리는 칼빈이 강조한 절대자 하나님이 루터가 정립한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서 ‘누구를 구원하는가?’라는 질문에서 ‘구원의 대상인 인간’을 강조하게 되었다. 세 위대한 선각자들은 각자 자기 상황에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였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루터, 칼빈, 웨슬리의 신학이 바로

이해되고 상호 보완될 때 개신교회의 신학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웨슬리 시대에 예정론 때문에 칼빈주의자들과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한국교회나 신학교에서 가끔씩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을 주제로 논쟁이 있으며 심지어는 상호 비방도 있다. 칼빈신학과 웨슬리신학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신학적 대화가 필요하다. 먼저 서로의 차이점을 알고, 그 배경과 근원을 살펴보고,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칼빈신학과 웨슬리신학의 중요 주제들을 그 강조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그 주제들은 1) 하나님의 절대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2) 은혜로 얻는 구원 3) 속죄의 범위 4) 구원의 대상 5) 성화(성결) 이다. 위의 주제들을 비교함으로써 얻어진 교훈은 ‘원칙은 일치하나 그 적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완전한 신학이 있을 수 없으므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신비와 진리를 조금씩 밝혀나가는 겸손한 신학작업이 필요하다.

I. 시작하는 말

기독교는 원래 하나였다. 그러다가 공식적으로는 1054년에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정교회로 분리되어 두 개의 기독교파가 되었으며,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운동 이후에 개신교회가 탄생하여 3개의 큰 기독교파가 존재하게 되었다. 개신교회에는 수백의 교파들이 존재하지 만, 대체로 16세기 루터(1483-1546)와 칼빈(1509-1564) 그리고 18세기 웨슬리(1703-1791)의 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러 개신교회는 각각 루터와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을 근원으로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신학의 심연과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제네바 대학교 교회사 교수 올리버 파티오(Oliver Fatio)의 웨슬리에 대한 평가이다. 그는 제네바 종교개혁 450주년 기념으로 (1536-1986) 출판된 책 *The Reformation: Many Men With One Idea* 라는 책에서 제네바 종교개혁의 뿌리로서 먼저 루터를 언급하면서 츠빙글리, 칼빈, 베자, 파렐, 피에레 비레(Pierre Viret), 녹스, 마틴 부처, 오이코람과 다우스(Oecolampadius) 등 스위스 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의 전통을 형성한 여러 지도자들을 소개한 후에 마지막으로 웨슬리를 종교개혁의 완성자로 소개하고 있다. 그는 웨슬리의 예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복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에서 힘있게 선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웨슬리아말로 스위스 종교개혁의 완성자임을 말하고 있다.¹⁾ 이는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이 서로 다르며 심지어는 대립된다는 일반적 인식을 수정하게 만드는 해석이다.

웨슬리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삼대원리—은혜만으로, 믿음만으로, 성서만으로—위에서 루터와 칼빈의 신학사상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신학을 형성한 18세기의 전도자이자 신학자이다. 웨슬리는, 루터가 자기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였으며,²⁾ 칼빈주의와는 “머리카락 하나의 차이”(within a hair's breadth)³⁾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웨슬리는 루터와 칼빈의 반대자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개혁신학을 재천명한 사람이다. 보스턴 대학 신학부 역사신학 교수로서 웨슬리를 25년이나 연구한 셀(George C. Cell)은 웨슬리는 루터나 칼빈의 반대자가 아니라,

1) Oliver Fatio, “The Calvinist Reformation Past and Present,” in: *The Reformation: Many Men With One Idea*(Geneva: Foundation of Les Clefs de Saint-Pierre, 1985), 4.

2) Philip S. Watson, 『프로테스탄트 신앙원리』, 이장식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72), 17에서 재인용.

3) Thomas Jackson ed. *The Works of John Wesley*, 14vols. (London: Wesleyan-Methodist Book-Room, 1831), VIII. 284 (이하 Works로 표기).

당시 영국교회(성공회)를 인본주의적인 아르미니안주의로부터 신본주의적 칼빈신학으로 복귀케 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⁴⁾

한국에는 칼빈신학의 여러 장로교회와 웨슬리신학의 교회들이(감리교회, 성결교회, 나사렛 구세군 개신교회의 두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신학도 자연스레 칼빈신학과 웨슬리신학이 한국 개신교신학의 두 기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한국신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웨슬리안 교회들과 장로교회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루터의 신학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둘 다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과 신학의 기초 위에서 자신들의 특징 있는 신학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II. 신학의 주제

1. 루터신학의 주제 : 구원의 방법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의 선봉자로 나선 것은 아니었다. 그의 종교개혁의 발단과 동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였는데 그것은 루터 자신의 구원의 문제였다. 즉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곧 구원의 방법에 관한 질문이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루터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는 어거스틴파 탁발 수도원으로 들어가 여러 가지 고행의 길을 수행하였고, 그는 자신의 말처럼 훌륭한 수도사였다.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다. 나는 내가 속했던 수도원의 규율을 너무나 철저히 지켰으며

4) George C. Cell, 『존 웨슬리의 재발견』, 송홍국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6.

로, 만일 수도사가 수도생활로 천국에 간다면 그는 나일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조금이라도 이 생활을 더 계속했다라면…나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⁵⁾라고 자신의 수도원생활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는 기대하였던 해답을 얻지 못하였고 결국 절망하였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였다. 시편(22편)을 통하여 고난받는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특히 로마서(1:17)에서 형벌적인 의(punitive justice)가 아닌 대속적 의(redemptive justice)를 발견하였다. 무서운 재판관으로 인식하던 하나님을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 사이의 관련성을 깨달을 때까지 밤낮으로 골똘히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은총과 단순한 자비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바로 그 의임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자신이 거둬나면서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바울의 이 구절은 나에게 천국의 문이 되었다.”⁶⁾ 이것이 루터가 새롭게 발견한 구원의 방법이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인데 이는 성서가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이다.

루터는 자신의 경험을 신학적으로 정리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회가 기초하고 있는 세 가지 원리, 즉 은총의 원리(only grace), 신앙의 원리(only faith),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only Bible)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요 선물이라는 점에서 ‘은총만으로’, 인간적인 모든 업적(선행)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신앙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구원의 소식(방법)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성서만으로’ 가능하다는 원리이다. 이것은 루터가 천주교회의 잘못된 구원의 방법을 성서적으로 올바르게 정립하였음을 의미한다.

5) William A. Scott, 『개신교 신학사상사』, 김쾌상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10-11.

6) William A. Scott, 『개신교 신학사상사』, 18.

2. 칼빈신학의 주제 : 구원자 하나님

칼빈은 종교개혁의 선봉장인 루터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므로 칼빈의 신학의 기본 사상은 대부분 루터와 일치한다. 칼빈은 루터가 정립한 구원의 방법과 신학의 3대 원리를 수용하면서, 그 기초 위에 자신의 신학작업을 수행하여 구원자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수립하였다.

루터의 신학이 ‘구원의 방법’이 주제라면, 칼빈은 ‘구원자 하나님’이 신학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루터의 구원의 방법을 전제하고서, 이 구원의 방법에 따라서 ‘누가 나를 구원하느냐?’라는 것이 그 다음 질문일 수밖에 없다. 그 해답은 당연히 ‘니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그분은 은혜와 믿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신다’이며, 이것이 칼빈신학의 중심이다. 그리하여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칼빈의 사상의 중심이었으며, 칼빈과 루터를 특징적으로 구분시켜 준 것이 바로 이 점이었다. 일반적으로 칼빈주의를 ‘하나님 중심의 신학’(God centered theology)⁷⁾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칼빈의 ‘신 중심의 신학’은 자연스레 세 가지 기본적인 개념으로 연결되는데 즉 1) 하나님의 절대주권, 2)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3) 예정론이다.⁸⁾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주권적인 통치와 은혜를 강조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 예정론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개념을 인간 구원에 적용할 때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원리이다.

3. 웨슬리신학의 주제 : 구원의 대상 (인간)

루터의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라는 질문과 칼빈의 ‘누가 나

7)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 (서울: 이레서원, 2001), 53.

8) William A. Scott, 『개신교 신학사상사』, 58.

를 구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이은 다음 질문은 ‘누가 구원받습니까?’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웨슬리의 신학이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따라서 구원의 대상인 ‘인간이 무엇이나?’라는 것이 웨슬리신학의 특징이며 중심주제가 된다.

루터와 칼빈의 사상에서는 현재 인간에 대하여 비판주의가 나타나지만, 웨슬리는 현재 인간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다. 이는 자연적인 인간 자신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가지는 낙관주의다.⁹⁾ 웨슬리는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현재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prevenient grace)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자연인’(natural man)은 없다고 보았다. 은총 안에서의 낙관주의가 비판주의를 극복한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인간에게 희망을 가진다.

웨슬리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한다. 선행은총에 의해 인간의 의지의 자유는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은총에 의해서 인간은 책임적 존재가 되었으므로 구원에 있어서도 인간은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가 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호의적으로 응답하면 구원을 얻고 거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때 주도적으로 선행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수동적으로 응답할 수 있고 또 응답해야 한다.¹⁰⁾

은총 안에서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웨슬리의 사상은 인간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성서적으로 새로운 발견이며, 당시의 인본주의자들과 구분된다. 인본주의자들은 ‘은총 안에서’가 아닌 ‘자연적인’ 인간의 능력과 책임을 강조하였다. 웨슬리신학이 인간을 강조하지만 복음적이

9)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168-169

10) 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설교전집 6』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65 (설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 이 설교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권과 인간의 응답의 필요성이 잘 나타나 있다.

라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점이다.

Ⅲ. 칼빈과 웨슬리 신학의 주요 사상

1. 하나님의 절대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1) 칼빈 : 하나님의 절대권 강조 : 16세기 전제군주시대의 인식

루터의 관심은 인간과 인간의 구원문제에 집중되었다면, 칼빈의 관심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루터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하시는 일이라면, 칼빈은 하나님이 자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루터에게서 인간을 의롭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 칼빈에게는 의롭다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관심의 초점이 바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신-중심주의는 자연히 칼빈의 신학에서 세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형성하게 되었으니, ① 하나님의 절대주권 ②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③ 그리고 위의 두가지 원리에서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예정론이다.¹¹⁾

필자는 하나님의 절대권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칼빈은 16세기의 사람이며(1509-1564), 16세기는 유럽에서 민족주의의 대두와 함께 새로운 전제군주제도가 성장하던 시기였다. 16세기 초부터 가장 눈에 띄는 정치적 현상은 근대 국가의 탄생이다. 이 시기는 중세의 봉건주의에서 근대의 중앙집권적인 왕정국가로 전환하는 분기점이었다. 각 민족을 중심으로 왕권이 크게 강화된 군주국가가 형성되었다.¹²⁾ 전제군주국가에서는 왕이 최고의 권

11) 윌리엄 A. 스코트, 위의 책, 58

12) 후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사상사(Ⅲ)』,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출판국, 1989), 26-28; W. 위커, 『세계기독교회사』, 강근환 외 역 (서

력자이며 절대권을 가진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므로 당연히 최상의 절대자요, 최대의 절대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칼빈이 그의 위대한 책 「기독교 강요」를 당시 프랑스 국왕에 바치는 헌사로 시작한 데서도 절대자와 절대권에 대한 그의 사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¹³⁾ 이러한 개념이 칼빈의 신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거기다가 이미 쇠퇴하여 영향력이 약화되었지만, 교황청이 주장하는 교황권 역시 아직은 세속권력에 대항하여 절대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교황보다 높은 분이라면 당연히 절대자가 될 수밖에 없다. 교황권과 싸우던 칼빈이 하나님을 최고 절대자로서 교황조차도 다스리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로 볼 수 있다.

2) 웨슬리 : 인간의 자유의지 강조 :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인식

웨슬리는 칼빈보다 약 200년 뒤 18세기의 사람이며(1703-1791), 이 시대는 계몽주의 시대였다. 서양의 역사에서 18세기는 보통 “계몽사상(enlightenment)의 시대”로 일컬어진다.¹⁴⁾ 오랜 황혼 속에서 마침내 유럽인들이 벗어난 시기였다. 유럽인들은 오랜 전통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심지어 교회와 기독교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대신에 인간 이성과 과학의 힘을 확신하고, 자연의 규칙성과 조화를 굳게 믿고, 문명의 발전과 진보사상에 깊이 몰두했던 시기였다. 인간의 이성을 위시한 인간 정신의 본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즉 인간이 인간 자신에 대한 재발견과 함께 인간이 인간을 깨우치던 시기라 할 것이다. 근대 서양의 과학과 철학이 태동하고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또한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전제군주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

출: 대한기독교서회: 1975), 239ff.

1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16-38.

14) R. R. 파머, J. 콜튼 공저, 『서양근대사 2 -계몽사상에서 민주국가의 발전까지』, 강준영 외 공역 (서울: 삼지원, 1988), 7.

가 획기적으로 발전한 시기였다. 따라서 ‘민주혁명(democratic revolution)의 시기’였다. 특히 영국은 의회의 권한이 크게 신장된 시기였다.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인간은 그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에 대하여 타고난 권리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의 허락을 받아 정부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였다.¹⁵⁾ 유럽의 도처에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일어났다. 사람은 계급이 없으며, 따라서 귀족과 평민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자각이 일어났다.¹⁶⁾

그리고 이 시기는 ‘산업혁명’의 시기였다. 원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산업혁명은 기존의 생산수단에 변화와 함께 사회 구조에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였다. 자본을 축적한 신중산층을 중심으로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자각과 주장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웨슬리가 태어나고 활동하였다. 웨슬리의 시대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던 시대였다. 이전의 권위적인 제도나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던 시기였다. 전제군주 시대에는 왕은 절대자였으며, 왕의 말과 뜻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시대에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며, 개인의 의지(선택)가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웨슬리의 신학 특히 그의 하나님과 인간 이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며, 인간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존재라고 이해한 것이다.

2. 은혜로 얻는 구원

은혜는 구원의 근원이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믿음을

15) W. 위커, 앞의 책, 358.

16) 위의 책, 49ff.

공로로 자랑할 수 없다. 루터와 칼빈과 웨슬리는 이 원칙에는 일치한다. 그러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느냐’라는 방법론에서 칼빈과 웨슬리는 다르게 해석한다. 칼빈은 오직 하나님 혼자서 일하신다고 해석하고, 웨슬리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신다고 보고 있다. 이는 완전타락한 인간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칼빈은 인간은 완전타락하여 전적무능력자로 보는 반면에, 웨슬리는 선행은총에 의하여 어느 정도(부분적으로)는 회복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대하여 칼빈은 신 단동설을, 웨슬리는 복음적 신인협동설을 주장한다.

1) 칼빈 : 신 단동설 (monergism)

칼빈은 완전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타락으로 인하여 실제로 일어난 현상은 아담이 본래적으로 가졌던 초자연적인 은사는 상실하였지만, 자연적인 은사는 부패하였다. 잃어버린 초자연적 은사는 영원한 축복을 받기에 필요한 신앙과 본래적인 완전한 모습이었다. 반면에 자연적인 은사는 지성과 의지인데 타락으로 인하여 부패하였지만, 인간에게 여전히 남겨져있다.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심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소름끼칠 정도로 왜곡되어 있다. 인간은 선을 선택할 가능성을 상실했다. 왜냐하면 윤리적 형상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기에 인간의 모든 욕망은 계속해서 악을 선택하고 행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다.¹⁷⁾

이제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밖에 없다. 이것이 ‘오직 은혜만으로’의 원리를 낳게 되었다.

1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5), 115. 8; 2.2. 26-27(이하 Institutes 로 표기).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하셨듯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소망은 없다. 창조와 섭리에서 절대적 주권자인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도 절대적 주권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교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인간이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가와 상관없이 나타난다. 인간의 죄와 죄책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한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내적 소명(오직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시는)은 거부되어질 수가 없다. 그것은 항상 회개를 가져온다…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도무지 거부할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이 미쳐지는 사람들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¹⁸⁾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부여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사람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와 그 은혜의 불가항력성은 인간의 무능력성과 함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논리적 결론을 가져오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 단동설’(monergism)이라고 한다.

2) 웨슬리 : 복음적 신인협동설 (evangelical synergism)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 원칙에서 웨슬리는 칼빈과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이 점에서 “웨슬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교리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요 인간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루터-칼빈적 명제의 완전한 재생이다”¹⁹⁾ 그러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어지며, 선행은총은 완전 타락한 인간을 어느 정도 회복하여 응답능력을 가진 책임적인 존재가 되게 하였다는

18) D. 스틸 & C. 토마스 공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김남식 역 (서울: 한국 성서협회, 1975), 21, 이것은 도르트회의에서 결정된 장로교회 5대교리 중에서도 네 번째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혹은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19) G. C. Cell, *The Rediscovery of John Wesley* (New York: Henry and Holt Co., 1935), 245.

점은 칼빈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었다. 웨슬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 안에서 자유한 것이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유한 것이다.’ 은혜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유롭다는 점은 칼빈주의의 견해와 다르다.

만약 하나님의 은총이 만민에게 골고루 주어진다면, 왜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웨슬리의 해답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호의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그 은혜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의 주도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이론을 웨슬리안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복음적 신인협동설’이라고 한다.²⁰⁾ 복음적 신인협동설은 결코 인간의 공로사상이 아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회개하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공로가 될 수 없음은 그 모든 것이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수동적으로 응답한 것 밖에 한 일이 없다. 즉 인간의 의지가 성령의 사역에 수동적으로 협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주도권에 아무런 이의없이 협동한다는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 그리고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는 없고, 다만 은혜에 의해서 은혜에 응답한 것 밖에 없다. 웨슬리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도울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죄에 죄를 더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소원하게 하든지 행하게 하는 이는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다”²¹⁾라고 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같은 수준에서 협동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칼빈주의에서도 인간은

20) Lycurgus M. Starkey,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A Study of Wesleyan Theology* (Nashville: Abindon Press, 1962), 116.

21) 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설교전집 1』, 348 (설교: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협력자(partner)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구원에서는 인간의 어떤 역할도 인정하지 않는다. 웨슬리의 복음적 신인협동설은 인간의 역할(공로)을 주장하는 가톨릭 사상과 은혜만으므로를 주장하는 개신교 사상을 성서 안에서 절묘하게 조화시킨 이론이라 볼 수 있다. 레오 콕스는 웨슬리의 이러한 신인협동설을 신단동설로부터 나온 신인협동설(synergism born of monergism)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신인협동설인가 아니면 신단동설인가? 아마도 최선의 대답은 둘 다이다. 시작은 신단동설(monergism)—하나님이 일하신다—이다. 그 다음에는 신단동설로부터 나온 신인협동설(synergism born of monergism)—사람은 일할 수 있게 능력이 주어졌다—이다.”²²⁾

3. 속죄의 범위

1) 칼빈 : 제한적 속죄 (limited atonement)

칼빈도 예수님의 속죄가 죄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속죄의 범위는 구원으로 예정된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멸망으로 예정된 자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으로 예정된 자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다. 「기독교 강요」에는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모든 선택된 자들의 믿음과 확신의 대상이었다”²³⁾고 하였다.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속죄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선택된 자들에게만 유효하다. 그리고 그 능력에는 제한이 없지만, 그 범위에는 제한이 있다. 2. 속죄는 선택된 자들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한다. 3. 그리스

22) Leo Cox, *Wesley's Concept of Perfection*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1968), 45.

23) *Institutes*, II, 6:4.

도께서는 오직 자기 백성들만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의 고난을 받으셨다. 4. 그리스도께서는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 구속을 완성하셨다. 5.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과 맺은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속죄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오직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사상이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²⁴⁾ 칼빈의 이런 사상에 근거하여 칼빈주의자들은 나중에 화란의 도르트(Dort, 1518-1519)회의에서 소위 칼빈주의 5대 교리(일명 TULIP)의 두 번째 항목으로 제한적 속죄(limited atonement)라는 이론을 확립하였다. 즉 그리스도의 속죄는 오직 구원으로 예정된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2) 웨슬리 : 무제한적(우주적, 보편적) 속죄(unlimited atonement)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과 대속이라고 해석한다. 그는 그리스도가 선택된 자들만을 위하여 죽었다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온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선언한 전도자로서 웨슬리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의 선물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는 제한적 속죄의 교리를 반대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우주적(보편적, 일반적) 은혜(universal grace)에 근거하여 웨슬리는 무제한적(우주적, 보편적) 속죄 (unlimited atonement)를 주장하였다. 이를 만인속죄설(universal atonement)이라고도 한다.

웨슬리는 로마서 8장 32절을 본문으로 한 유명한 설교 “값없이 주시는 은혜” (Free Grace)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 하시겠느냐”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24) W. Gary Crampton, 『칼빈의 신학』, 박일민 역 (도서출판 그리스심, 2003), 93-94.

구원의 은혜(saving grace)는 “모든 사람 안에서 자유롭고(free in all),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유롭다(free for all)”²⁵⁾고 선언하였다. 구원의 은혜는 일부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4. 구원의 대상

1) 칼빈 : 구원으로 예정된 자만 구원

칼빈은 구원은 오직 구원으로 예정된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일반적으로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칼빈의 예정론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창세전에 예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이중예정(double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을 두 번 예정한 것이 아니라, 구원과 멸망의 두 종류의 예정을 의미한다.²⁶⁾ 하나님의 예정은 그의 예지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그의 영원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뜻에 따라 결정된 것, 즉 믿음이나 선행을 미리 아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거저 주시는 은혜에 기초한 것이다. 예정론은 구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만을 극대화 하며, 반대로 인간 편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참여도 인정하지 않는 신 단동설(monergism)이다.

예정론과 제한적 속죄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칼빈에 의하면 만약 모든 사람이 속죄되었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는 저들이 예정되지 못함과 함께 속죄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당연히 멸망하는 것이며, 구원받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하나

25) 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설교전집 4』, 238 (설교: 값없이 주시는 은총).

26) *Institutes*, 3. 22. 5; 3.23. 1-7.

님의 예정은 찬양과 영광이 된다. 예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다.

2) 웨슬리 :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

예정이라는 단어는 성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다만 해석이 문제이다. 칼빈처럼 해석하면 절대적 예정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칼빈은 구원 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창세 전에 예정하였다는 이중예정(double predestination)인데, 이는 ‘개인 개인’에 대한 예정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다르게 해석하였다. 즉 그는 예정은 ‘구원의 방법’을 미리 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시키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에 따라서 ‘누구든지 지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설교하였다.²⁷⁾

웨슬리는 구원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믿음은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데, 인간은 선행은총에 의해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웨슬리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값없이 주시는데, 이 은혜에 의하여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 예정된 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반해 웨슬리는 때때로 거부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은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더 강조한다. 칼빈에게는 구원과 멸망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만, 웨슬리에게는 인간 자신에게 있게 된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웨슬리의 만인 속죄설(universal atonement)이 만인 구원설(universal salvation 또는 universalism)은 아니라는 것이다. 속죄는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구원은 조건적인데, 그 조건은 믿음이다.²⁸⁾ 웨슬리안은 만인 속죄설에 근거하여 만인 구원의

27) 한영태, 『웨슬리의 조직신학 II』 (서울: 성광문화사, 1998), 63.

가능성을 믿으면서 전도하지만, 만인의 자동구원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5. 성화(성결)에 대한 해석

구원론에서 루터는 칭의(죄용서)를, 칼빈은 중생을, 그리고 웨슬리는 성화(성결, 거룩)를 강조한다. 구원의 시작 또는 초기의 구원은 칭의, 중생, 그리고 양자를 포함한다. 이 셋은 하나의 동시적 사건 즉 최초의 구원사건인데,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정리한 신학 용어이다. 즉 사법적 관점에서는 칭의, 영적 도덕적 관점에서는 중생, 그리고 가족적 관점에서는 양자(자녀됨)라고 부른다. 그러나 논리적 순서로는 위의 순서가 맞다. 죄용서(칭의)를 받은 후에 거듭나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칭의, 중생, 양자, 그리고 초기성화를 한 마디로 회심(conversion)이라고 한다.²⁸⁾

신구교를 막론하고 모든 교파와 신학은 성화(성결, 거룩)를 가르친다. 다만 성결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다르게 주장할 뿐이다. 루터는 칭의와 동시에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칭의동시설 또는 회심동시설, 칼빈은 중생과 함께 성화가 시작되어 일평생 지속된다고 하고(점진적 성화), 웨슬리는 중생 이 후에 경험하는 또 다른 사건이라고 한다(완전성화). 어느 이론에 동의하느냐에 관계없이 모든 성도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 11:45)는 말씀 앞에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출 31:13; 레 20:7-8; 겔 20:12,20)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거룩한 자, 즉 성도가 되어야 한다.

28) 한영태, 『웨슬리의 조직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3), 156.

29) 위의 책, 206.

1) 칼빈 : 점진적 성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칼빈은 회개, 중생, 칭의, 회심, 그리고 성화가 동의어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물론 각각에 대하여 설명할 때는 혼동하지 않고 고유의 개념을 잘 제시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의 연합을 통하여 동시적이란 의미에서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러면서도 성화는 칭의와 구분되는 중생과 중생 이후의 성도의 삶이란 의미에서 주로 사용된다.³⁰⁾

순간적이며 완결된 사건인 칭의와 동시에 중생, 즉 성화는 시작한다. 이 점에서 성화는 순간적 또는 결정적이며 또한 점진적이다. 순간적 성화는 칭의와 함께 즉각적으로 성도의 신분이 변하므로 이를 ‘신분적인 성화’(position sanctification)라고도 한다. 즉각적 변화를 통하여 성화는 시작하지만, 거기서부터 성도는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신자는 성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성화는 불가능하며, 죽음 이 후에야 가능하다.³¹⁾

이렇게 점진적 성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신자 안에 아직도 죄가 남아 있으며, 일생동안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자는 칭의와 중생에서 죄책은 용서받지만, 죄성은 변화가 시작되었으나 완전히 변화 또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두 본성의 교리’를 칼빈이 받아들인 결과이다. 거듭난 신자는 옛 본성과 함께 성령에 의하여 주어진 새 본성을 가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 그는 진정으로 새로운 존재이지만 아직 완전히 새로운 존재는 아니다. 죄 없는 새로운 성질과 부패한 옛 본성이 죽을 때까지 공존한다. 따라서 성화는 사망에 이르러서야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요약하면 신자는

30) 안토니 A. 후쿠마, 『개혁주의 구원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333.

31) 조대준, 『크리스찬의 성화』 (서울: 쿰란출판사, 2004), 235-237.

더 이상 옛 사람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새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되어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간다.³²⁾

2) 웨슬리 : 완전성화

완전성화는 웨슬리신학의 핵심이 되는 진리이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과 심지어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웨슬리는 Holy Club 시절부터 성화를 추구하면서 성화가 성서적 진리임을 확신하였다. “내가 이 교리를 어디서 언제 발견하였는지 간단명료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친구약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편견도 욕망도 없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발견한 것이다.”³³⁾ 웨슬리가 주장하고 가르친 성결은 성서적 성결이며 기독교가 초대부터 가르치고 간직해온 성서적 진리였다. 그러므로 웨슬리는 완전은 자신의 교리가 아니요, 사도 바울,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리고 당연히 우리 주님의 교리라고 하였다.

성화(성결)가 성서적 진리이기에, 기독교 역사상 어느 교회나 신학자도 이 진리를 부인한 적은 없다. 다만 그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칼빈은 현세에서 완전성화는 불가능하며 사후에야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나, 웨슬리는 이 땅에서 신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하다고 하였다. 중생한 신자가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을 깊이 자각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회개) 때 신자는 남아있는 죄성으로부터 정결함을 얻고 사랑의 충만을 얻게 된다. 이것은 중생과는 구분되는 두 번째 은혜요, 변화이며,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자는 이를 경험할 수 있다. 칭의 후에 두 번째 은혜에 의하여, 죄성이 변화되고(정결), 그 빈 마음 속에 성령에 의하여 사랑의 충만을 얻게 되며, 이런 변화는 현세에서 가능하다는

32) 멜빈 디이터 편, 『성화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 김원주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 출판부, 1991), 106.

33) John Wesley, 『웨슬레의 기독교자 완전에 대한 해설』, 조종남 역 (서울: 한국복음 문서관행회, 1996), 136.

것이 칼빈과의 차이점이다. 그러나 성화가 인간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둘 다 인정한다.

웨슬리의 성화론은 사랑이 그 본질이다. 완전이나 성결에 대한 오해와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웨슬리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하였다. 심지어 그는 “완전, 성화, 제2의 은혜, ‘나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사용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러 이러한 때에 이런 변화를 경험했고, 하나님과 온 인류를 향한 충만한 사랑 밖에 아무 것도 느낀 것이 없다”³⁴⁾라고 말하라고 하였다. 그는 성화된다는 것은 “의와 참 성결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³⁵⁾

성화의 본질이 사랑이므로 이것은 인간 스스로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사랑은 성령의 은사요 동시에 열매라고 하였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사랑은 이 두 개념 모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 은사와 열매는 모두 성령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인 사랑, 즉 온전한 성화는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주시고(이루시고), 우리는 경험한다. 그리고 살아야 한다.

IV. 마치는 말

모든 신학은 하나의 신학이지 절대적인 신학이 될 수 없다. 자기의 신학이나 교리를 절대화할 때 교조주의가 나타나며 독선의 위험이 도사린다. 기독교의 기본원리나 교리에 일치한다면 의견의 차이는 서로 이해

34) 위의 책, 121-122.

35) 위의 책, 44-45.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날 신학 상호간에 교차적인 영향이 점점 커져간다는 사실이다. 웨슬리적-칼빈주의자(Wesleyan-Calvinist) 또는 칼빈적-웨슬리안(Calvinistic-Wesleyan)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를 잘 보여준다.³⁶⁾ 이에 대하여 외일리는 “오늘날 칼빈주의로 간주되는 것은 칼빈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아르미니안화 되었다. 오늘날 이 나라(미국)에 있는 장로교주의는 아르미니안화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³⁷⁾라고 하였다.

웨슬리는 칼빈주의자나 아르미니안 설교자는 1) 칼빈주의자나 아르미니안이란 말을 비난의 용어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2)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³⁸⁾ 우리는 관용의 정신과 신학적 유연성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신학적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신학의 폭과 깊이는 더해 갈 것이며, 이는 한국신학의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증거와 섬김에서 공동사역을 위한 일치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모든 진정한 신학은 서로 다른 입장과 자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종의로서 함께 일하고 있으며 또 함께 일해야 한다.

36) 밀드레드 와인콕, 『칼빈주의와 웨슬레 신학』, 한영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74ff.

37) 위의 책, 71에서 재인용.

38) 한국웨슬리학회 편, 『존 웨슬리 논문집 I』 (서울: 한국웨슬리학회, 2009), 92.

참고문헌

-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 서울: 이레서원, 2001.
-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 조대준. 『크리스찬의 성화』. 서울: 쿰란출판사, 2004.
- 한국웨슬리학회 편. 『웨슬리설교전집 6』.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한영태. 『웨슬리의 조직신학 II』.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멜빈 디이터 편. 『성화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 김원주 역. 서울: 한국
기독교학생출판부, 1991.
- 밀드레드 와인쿱. 『칼빈주의와 웨슬레 신학』. 한영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 안토니 A. 후쿠마. 『개혁주의 구원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
교회, 1990.
- 후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사상사(III)』.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대
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9.
- D. 스틸 & C. 토마스 공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김남식 역.
서울: 한국성서협회, 1975.
- Gary Crampton. 『칼빈의 신학』. 박일민 역.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03.
- George C. Cell. 『존 웨슬리의 재발견』. 송홍국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
판사, 1982.
-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 John Wesley. 『웨슬레의 기독교자 완전에 대한 해설』. 조종남 역. 서울:
한국복음문서간행회, 1996.
- Philip S. Watson. 『프로테스탄트 신앙원리』. 이장식 역. 서울: 컨콜디
아사, 1972.

William A. Scott. 『개신교 신학사상사』. 김쾌상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8.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5.

Cell, G. C. *The Rediscovery of John Wesley*. New York: Henry and Holt Co. 1935.

Cox, Leo. *Wesley's Concept of Perfection*.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1968.

Fatio, Oliver. "The Calvinist Reformation Past and Present." in: *The Reformation: Many Men With One Idea*, Geneva: Foundation of Les Clefs de Saint-Pirre, 1985.

Jackson, Thomas ed. *The Works of John Wesley*. 14vols. London: Wesleyan-Methodist Book-Room, 1831, VIII.

Starkey, Lycurgus M.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A Study of Wesleyan Theology*. Nashville: Abindon Press, 1962.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Main Themes Between Calvinism And Wesleyanism

Han, Young-Tae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Calvinism and wesleyanism are two major pillars of Christian theology in Korea. Needless to say, the foundation of all the protestant theologies(even churches) is the theology of Luther. both Calvinism and wesleyanism are standing on the theology of Luther. Luther, who fought against the wrong way of salvation taught by the Catholic church, established 'biblical way of salvation'. Calvin accepted Luther's 'biblical way of salvation', then established the idea of 'the sovereign God' as an answer to his own question of "who saves me by the 'biblical way of salvation'. Almost two centuries later, Wesley standing on the principles of Luther and Calvin established the idea of "man as the object of salvation" as an answer to his own question of "who is saved by 'the sovereign God' with the 'biblical way of salvation'. As "a threefold cord is not quickly broken"(Eccles. 4:12), the protestant theologies can be completed when the three great theologians' ideas are properly and supplementary understood.

Just like there were some controversies with 'predestination' between calvinist and wesleyan in the 18th century, some arguments are often occurred between calvinist and wesleyan in Korea today. Therefore theological dialogue between calvinist and wesleyan is

required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dialogue, we can also find out the common or different factors in two theologies.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dialogue, the following themes are needed to discuss : such as 1) God's sovereignty and human free will, 2) salvation by faith, 3) limited or unlimited atonement, 4) the object of salvation, 5) sanctification (holiness).

From the comparative study of those themes between calvinism and wesleyanism, we come to a conclusion that they agree to principle, but disagree to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It is impossible to have a perfect theology, therefore we must humbly cooperate in a course of theologizing to know the truth.

Key Words

존 웨슬리, 장 칼빈, 자유의지, 은혜, 성화

John Wesley, Jean Calvin, Free Will, Gracel, Sanctification